

‘꼬막의 계절’ 벌교꼬막축제 막오른다

오늘부터 사흘간 벌교읍 천변서... ‘청정갯벌의 선물’ 주제 꼬막 1만원 뷔페·황금 꼬막 잡아라·드론라이트쇼 등 다채

천혜의 자연 여자만 갯벌에서 자라난 벌교 꼬막을 바탕으로 ‘제20회 벌교꼬막축제’가 11월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벌교읍 천변에서 개최된다.

31일 보성군에 따르면 벌교꼬막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꼬막과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벌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향토 문화축제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정평이 났다.

올해는 벌교꼬막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해 ‘청정갯벌의 선물! 벌교 꼬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꼬막 노래자랑, 열린음악회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축제 첫째 날인 1일에는 보성군 농악 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도전 꼬막 비빔밥 1천인분 만들기, 꼬막 노래자랑, 명인 명장 국악의 향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날 오후 6시부터 20번째를 맞이하는 벌교꼬막축제를 기념하고자 전해설, 박서진 등이 함께하는 개막 축하 공연과 1천여 대의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단, 안전을 고려해 우천 시 취소되거나 변경 운영될 수 있다.

둘째 날인 2일에는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6주년 행사, 조정래 작가 북 콘서트, 주니어 채등산실내악단 공연, 꼬막 노래자랑 결선을 진행하며 오후

6시부터는 코요태, 나상도 등의 공연이 포함된 열린음악회와 불꽃쇼가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소설 태백산맥 무대 등반, 보성소리 공연, 어울마당(지역가수 공연), 청소년 ‘끼’ 콘서트 등으로 장식한다.

축제 기간인 1일부터 3일 동안 행사장 일원에서는 시간대별로 꼬막 무료 이벤트(꼬막 끼기, 꼬막 무게 맞추기, 꼬막 경매)와 꼬막 1만원 뷔페, 황금 꼬막을 잡아라 등 꼬막 관련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체험형 놀이터, 전시행사 등을 진행해 남녀노소 모두가 벌교의 맛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의 대표적 인 향토 문화축제인 벌교꼬막축제를 통해 남도 대표 특산물인 벌교꼬막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보성군이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벌교읍 천변에서 ‘제20회 벌교꼬막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벌교꼬막축제에서 대형 꼬막 비빔밥을 비비고 있는 모습. <보성군 제공>

공영민 고흥군수, 핵심 미래산업 국비 확보 ‘사활’

기재부 방문...국도 15호선 확장 등 10건 역점 사업 건의

공영민 군수가 민선 8기 군정의 3대 핵심 미래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31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9일 공군수는 기재부 방문을 방문, 역점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한 역점 사업은 ▲국도 15호선(고흥-봉래 나로우주센터) 4차로 확장(5천622억원) ▲국립 팔영산권 난대산림치유원(사업비 미정)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 시험시설 구축(485억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00억원) 등 총 10건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최우선과

제”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기획재정



공영민 고흥군수(왼쪽)가 지난 29일 기재부 방문을 주관한 공군수(오른쪽)에게 고흥군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을 설명하며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꼭 200년 고흥 인구 10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화순 파크골프장, 무료 시범운영 연장

올해 연말까지...이용객 만족도 향상 계고

화순군은 31일 “올해 말까지 화순 파크골프장(사진) 무료 시범운영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이유는 ▲화순 파크골프장의 홍보 극대화 ▲이용객 친화적인 운영 ▲편의성을 갖춘 시설 환경 철저히 보완 ▲이용객 만족도 향상 및 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무료 시범운영 기간의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나뉘며, 1주일 전 오전 10시부터 오전·오후로 나뉘 온라인 예약으로 400명(100팀), 현장 접수로 400명(100팀)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은 ‘화순파크골프장’을 포털 검색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은 초기 잔디 활착 관리 등을 위해 휴장한다.

화순파크골프장은 정규 코스 8홀과 별도의 연습 코스 6홀을 포함해 총 87홀, 10개 코스(18만8천347㎡)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파크골프협회와 파크골프연맹 두 곳의 공인 구장 인증을 진행 중이다.



인증 후 2025년부터 다양한 파크골프 대회와 관련 행사가 개최된다.

이현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무료 시범운영을 연장해 화순 파크골프장의 운영과 시설 전반에서 불편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강화함으로써, 이용객이 즐겁고 편리하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구장이 되길 기원한다”며 “화순군의 관광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첫 가이드북 ‘장성 축령산 둘레둘레’ 발간

郡·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기획...5가지 주제 구성

장성군은 31일 “축령산 풍경과 이야기를 담은 첫 가이드북 ‘장성 축령산 둘레둘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성군과 장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기획하고 출판사 ‘상상창작소 북이’ 펴낸 ‘장성 축령산 둘레둘레’는 ▲울울창창 초목숲 ▲둘레둘레 축령산 ▲고갈고갈 마을들 ▲도란도란

사람들 ▲짜목짜목 장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전라도닷컴’ 황봉년, 남인희, 남신희, 임정희 기자가 글을 썼다. ‘울울창창 초목숲’은 축령산의 나무와 숲에 관한 이야기다. ‘둘레둘레 축령산’은 축령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만난다. ‘고갈고갈 마을들’은 선 축령산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한다. ‘도란도란 사람들’은 귀농인과 청년, 작가 등의 삶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본다. ‘짜목짜목 장성’은 장성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공간을 소개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축령산 둘레둘레’ 발간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령산의 매력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격은 권당 1만4천원이며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주요 온라인서점과 지역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마을 세무사에 무료 세금 상담하세요”

여주시 마을세무사 재능기부로 운영...市홈페이지서 신청

여주시는 31일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평상시에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장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관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

년 처음 도입돼 현재 11명의 세무사가 5기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와 국제 관련 세금 문제,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선장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

가 어려웠던 영세 납세자를 위해 전년도 선정된 세무 전문가가 무료로 대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천만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정광현 순천시의회 “교통체증 해소 도로환경 개선” 촉구

市 “실시간 교통량 분석 ‘스마트교차로’ 추가 설치”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천·중앙·사진)은 31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집문을 통해 순천시의 지역현안 문제 중 하나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광현 의원은 ▲용당동 일대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 ▲가곡동 대광로제비암-서면 모야엘가 간 보행교 설치 ▲포트홀, 싱크홀 발생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해 질문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입주 후 심각한 용당동 일대의 교통체증 문제가 신속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민선 8기 공약이었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를 촉구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삼산로의 도로 확장이 어려운 관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AI 기반 실시간 교통량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교차로 오는 11월까지 총 6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순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적정 신호주기를 조정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가곡동 대광로제비암-서면 모야엘가 간 보행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소관부서의 공

감을 이끌어냈으며, 이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행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근 심각한 도로 문제로 대두된 싱크홀, 포트홀 발생에 대해 ▲피해 보상 대책 수립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수 ▲과적 차량의 단속 ▲포트홀 집중 발생 시기 도로 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광현 시의원은 “시장집문이 시의 도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돼 순천시가 보다 활력 넘치는 대자포 도시에 한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 지역단체 전시 ‘풍성’

전통공예문화연구회·담양미술협회 회원전...이용자 중심 체험 전환

담양군은 31일 “지역 예술단체에 창의적인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지역 문화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사진)에서 다양한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월과 12월에는 지역예술단체가 주관한 2개의 기획전시가 개최된다.

먼저 오는 11월13일까지는 전통공예문화연구회에서 ‘함께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지역작가와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창작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12월2일부터 7일까지는 담양미술협회 회원전을 열어 8개 분과 25명의 작가가 다양한 전시로 관람객들과 소통한다.

한국대나무박물관은 1988년 개관 이후 대나무공예품 전시, 만남의 광장 등 연 4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대나무

공예 문화탐방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단순 대나무 전시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체험학습으로 전환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나무와 관련된 각종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작품전시

를 시작으로 갤러리 공간을 지역문화 예술단체 및 동아리 회원들의 전시 공간으로 제공하고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선미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나무박물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공시설로서 박물관이 지역사회 생활문화예술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